노조 · 군승혼인 · 비구니회… “대안 마련을”

조계종 214회 중앙종회 임시회 ‘주요 종책질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서는 노동조합과 군승혼인 대책,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종책질의가 쏟아졌다. 공식 문건 종책질의만 44건에, 현장 추가 질의까지 합치면 50건이 넘는 질의가 잇달았다.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내용을 정리했다.

조계종 노조 온도차 극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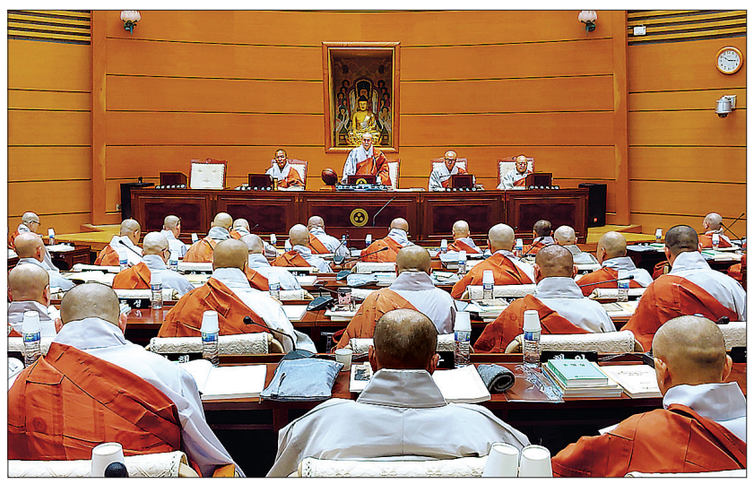
이번 임시회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지난해 9월 20일 출범한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이하 조계종노조)의 행보다. 조계종노조는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3차례에 걸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으로, 사용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본회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조계종노조를 바라보는 의원 간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부의원들은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상대로 사실상 제소했다는 점에서 강경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다른 일부의원들은 이미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갈등 양상이 아닌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식 문건 종책질의만 44건
추가질의 포함 50여건 다뤄
집행부 현안 적극 대응 당부

심우 스님은 조계종노조가 산별노조라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심우 스님은 “산별노조는 중앙종무기관뿐만 아니라 본말사 종무원들까지 가입 가능하다. 총무원장스님이 교섭에 나서면 결국 일반 사찰에서는 주지들이 종무원들과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태원 스님은 현재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의 급여와 처우가 타종단, 타종교계보다 열악한 상황인지를 물었다.


조계종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서는 약 50건에 달하는 집행부 종책질의가 다뤄졌다.

이에 기획실 측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조계종노조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거세졌다.

법원 스님(직할교구)은 “노조 출범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며 말하는 도반들이 있다. 말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며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얘기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일감 스님은 조계종노조 가입자도 종무원 일원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감 스님은 “(노조를)우리 식구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번 문제는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벌어지지 않은 일이면 예방해야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협의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혜일 스님은 “조계종노조보다 오래전 창립된 종무원조합 인원이 10배쯤 많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한 분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승혼인 ‘대응 미흡’ 지적

종책질의서는 군승의 혼인으로 인한 전역처분 관련 소송에 집행부와 군종교구 측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이를 관장하는 군종교구가 연수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등안 스님은 “해군군승 1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승소해 다시 복귀하고, 승적을 태고종으로 변경했다. 또 공군군승 1명은 조계종을 상대로 패소하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집행부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 TFT 구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군승혼인 문제와 관련해 총무원 공식입장은 종헌종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자 군승출신 종회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법원 스님(직할교구)은 “2명의 법사가 군승의 결혼금지 이후 혼인했다. 문제는 이후 군승들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했을 때 종헌을 개정한 취지가 무너진다는 점”이라며 “이로 인한 파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응이 미흡해 우려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방향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거공약과 신년기자회견서 밝힌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의 방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당초 종법기구화는 비구니계의 중지를 모은 사안이 아닌 것으로, 총무원이 이를 먼저 제안한 배경을 묻는 것이었다.

정운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특별교구, 종법기구화 등 공약이 나오지만 전국비구니회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어떤 내용으로 전국비구니회를 종법기구화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종법기구화는 비구니스님들이 수행하는 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고민하며 나온 하나의 공약”이라며 “비구니회 집행부와 비구니 종회의원스님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이 정리 되는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책질의서는 이외에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연기 배경, 교역직 종무원의 복지혜택 상향, 대정부 정책, 종교편향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비구니 의료복지 · 군포교 사업 ‘박차’

전국비구니회, 올해 예산 약 12억 원 확정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올해 의료복지와 군포교를 주요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3월 22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약 12억2876만원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승인했다.

먼저 전국비구니회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8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사업은 조계종 비구니 · 사미니를 대상으로 한다. 스님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백천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은 의료비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30%에 해당한다. 전국 모든 병 · 의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래진료 의료비와 비급여 항목 중 치료 목적 외 금액은 제외된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는 239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수계법회는 7월 27일 오후 2시 봉행된다. 이외에도 전국비구니회는 사찰음식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온가족 사찰음식 대잔치, 승가교육 ‘선요강설’ 등에 대한 예산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올해는 11대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해다. 그동안 많은 스님들의 노고 덕분에 전국비구니회 50주년 행사를 치르고, 큰 서원이었던 명사법계 품서식도 잘 마칠 수 있었다”며 “전국비구니회는 언제나 스님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2016년 제명한 제10대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과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에 대한 복권을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지역 본말사 화합해 종단 안정”

수덕사 주지 정묵 ·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임명

교육불사 · 성역화기금 기탁
장경사 주지에는 진광 스님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과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정묵 스님과 경우 스님에게 각각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묵 스님과 경우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를 재임하게 됐다.

이날 주지 임명 이후 수덕사는 (재)아름다운동행에 교육불사기금 1000만원을, 선운사는 성역화불사기금 2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과 교구가 함께 발전하고 한국불교 이념이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묵 스님과 경우 스님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본말사의 화합을 바탕으로 종단 안정과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묵 스님은 “종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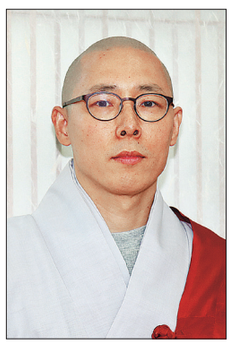
이어 경우 스님은 “종단 안정에 앞서 본말사가 먼저 화합해 종단 발전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할교구 장경사 주지에는 진광 스님이 임명됐다.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1976년 수계했다. 선본사 · 호압사 주지와 제12~15대 중앙종회의원,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2월 수덕사 주지로 부임했다.


정묵 스님


경우 스님


진광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태허 지성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수계했다. 만일사 · 청연사 · 장경사 주지 및 총무원 사서실장, 제15~16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선운사 주지로 임명됐다.

직할교구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동명 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했다. 청연사 · 성라암 · 불암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총무원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